社 說

성취하는 95년 만들자

이제 1995년 새해가 밝았다. 지난 해가 워낙 많은 사건, 사고로 얼룩진 한 해여서인지, 송구영신(送舊迎新)이란 말이 없더라도 빨리 보내고 어서 맞이하고 싶은 해였다. 유교의 경전인 '서경'에 보면 "충심으로 구하면 꼭히 목적한 바가 다 이루어지진 않더라도 크게 빗나가지는 않는다(心性求之, 雖不中, 不遠矣)"라는 말이 있다. 올 해는 사람이 상하지 않고, 나라가 평온하며, 나아가 우리의 소원인 통일이 성큼 앞으로 다가오는 그런 한 해를 만드는데 힘쓸 우리 대학주보 독자들께 위의 글을 덕담으로 드리고자 한다. 묵은 해와 새해를 나눈 것 자체가 우리 인간인 만큼, 새해라고 해서 그냥 복을 내려주지는 않을 것은 분명한 일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복을 만들어야 할 것이니 새해에는 꼭 이루고자 하는 소원을 세우고, 그 소원을 이루도록 마음을 다잡을 일이다. 그러다 보면 바라는 복이 백프로 다 이루어지지는 않아도 엇비슷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사람 사는 이치인 법이다.

새 해는 여러 모로 의미깊은 해일 것 같다. 우리 학교의 역사로 볼 때도 대학평가를 잘 받아 반세기의 매듭을 지어야 하는 해에 속한다. 어디 그뿐이랴. 국가적으로는 해방 50년에 분단 50년이니 해방의 의미를 되살리면서도 분단의 반세기를 매듭지어야 할 해이기도 하다. 이것은 다시말해 국가적으로는 허리띠를 졸라매고 달려왔던 근대화 시대의 마감을 지어야한다는 뜻이고, 학교적으로도 운동에서 운동으로 이어온 치달림의 역사를 뒤돌아 보아야 할 해라는 뜻이다.

실로 우리는 지난 세월 그 어느 대학이 넘겨보지 못한 만큼 한 걸음 앞서 달려왔다. 새마을운동으로 대표되는 국가적 운동의 시원(始原)이 우리 학교에서 태동시켰던 '잘살기 운동'임은 알만한 사람은 다 알거니와, 국제화에 일찌감치 눈떠 이제야 국가에서 논하는 '세계화'의 선구가 되었음도 내외가 공지하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차분히 그간의 공과를 따져서 이을 것은 잇고, 버릴 것은 버리는 반성의 시간을 가질 때가 되었다. 그 반성은 단순히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실정적이고 또 촉급(促急)한 것이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올해부터 실마리를 풀 교육개방에 즈음한 긴장때문이기도 하며, 보다 구체적으로는 '대학 평가제' 실시를 목전에 둔 팽팽한 위기감 때문이기도 하다. 사실 우리가 열심히 투자하고, 건설해 온 과거의 이력을 심판 받는다는 자세로 답담히 그런 평가를 받아야 마땅한 일이지만, 어디 세상일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재산들에 대한 심사는 쉬운 일이 아니기에 가시적이고, 단편적인 것을 전체적인 평가로 확대해버리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보아왔기 때문이다.

싸우지 않으려면 모르되, 싸운다면 이겨야 하고, 겨루지 않는다면 모르되 겨룬다면 이겨야 하는 법이다. 내남없이 겨루는 이번 대학 평가에는 우리 경희의 구성원 모두가 열과 성을 다하여 "충심으로 구하면 꼭히 목적한 바가 다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크게 빗나가지는 않는다"는 금언(金言)을 좌우명(座右銘)으로 삼아 좋은 성과를 이루어내야 할 것이다. 대학평가에서의 좋은 점과를 통해 개운하게 95년을 채우고, 또 이를 바탕삼아 새로운 도약을 시도함으로써 차후 거세게 몰아 칠 대학 개방의 문제에도 능동적이고, 보다 주체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자! 올해는 소극적으로는 우리 경희인들 모두가 건강하고 또 가정의 안녕이 깃들면서, 또 적극적으로는 우리 모두가 하나로 뭉쳐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대유루(遺漏)가 없는 그런 한 해가 되도록 매진해 나가자.

일제청산, 구호로만 그치는가!

신년특집 광복 50주년을 맞아 되새겨보는 우리의 과제

민족정기 회복해야 외세 개입된 분단 극복
친일반역자, 자주·통일 실현의 결정적 장애

남 상 기
〈반민족문제연구소 연구원〉

1995년은 광복 50주년이 되는 해이다.

동시에 이 나라의 분단 50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다.

일제의 강점으로 인해 극도로 피폐해진 민족정기가 반세기나 지난 오늘날 얼마나 되살아 났는가 되돌아 본다면 조국의 현실은 실로 암담하기 그지 없다.

우리 역사에서 잘못된 과거가 올바로 극복되어지지 못함으로 그 후세의 역사가 불행해진 사례가 없지 않지만, 그 중에서도 해방 이후 친일파 청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함으로 인해 우리민족이 감수한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돌이켜보면 일제 패망이후 우리 민족은 통일된 민족국가를 수립하고 친일파 민족반역자를 청산하여 해방된 새나라를 건설할 희망에 부풀어 있었다.

그러나 이 소망은 38선을 분할하여 진주한 미군으로 인해 이루어질 수 없었다.

미국은 38선 이남을 대소전진기지로 만들기 시작했던 것이다.

이러한 미국의 전략은 전아시아를 과괴 살륙했던 일본을 미국의 아시아 지배의 보루로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부흥의 길을 걷게 만들었다.

대신 우리 민족의 해방과 일제의 패망을 위해 목숨 걸고 싸웠던 애국자들은 미국정책의 방해물로 인식되어 철저히 소탕되었던 것이다.

미국이라는 막강한 배경을 확보한 친일세력은 그들의 생존의 활로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영달을 보장할 단독정부를 만들기 위해 민족세력을 체계적으로 거세해 나갔다.

우리 민족 사이에 인위적인 좌우이념의 대립선을 만들어 민족을 분열시키고 서로 싸우게 만들어 영구히 통치해 나가는 것이 일제의 식민지 통치전략이었다면 이것이 해방 이후 지역과 이념대립의 복합체로 훨씬 강화되어 나타난 것이 분단구조이다.

미국과 친일세력은 좌우이념의 대립구도를 만들고자 하였으나 이 분단구조는 우리 민족을 사멸시킬 구조였기 때문에 이념의 좌우를 불문하고 모든 민족세력이 다 나서서 싸웠다. 때문에 분단구조는 좌우 이념대립선이 아니라 결국 우리 민족과 외세의 앞잡이를 가르는 경계선이 되고 말았다.

세계의 냉전이 사라지고 이념적 적대성이 사라진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냉전의 구조와 논리가 한치도 바뀌지 않은채 우리 민족을 짓누르고 있을 뿐 아니라 오히려 냉전이 소멸된 데에서 오는 피해까지도 통땅 덮어 씌우고 있는 까닭은 무엇인가?

바로 이것이야말로 우리사회의 민주화의 좌절이 무슨 안보나 냉전 때문이 아니라 외세의 이익을 보장해주는 '현지 법인체'때문에 일어나는 것임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그러하여 지난날 보다는 민중의 고통은 오히려 가중되고 민족의 존망을 가늠하기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우리에게 있어서 체제대립, 이념대립이란 외세의 이기와 전략을 보장하기 위해 민족의 존엄과 그 존재기반을 부정하는 외세의 '현지법인체' 즉 반민족주의자 매국노들이 자신의 정체를 위장하는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

잘못 끼워진 첫단추

1993년 김영삼 정부가 들어선 이후 한때 여러 차원의 '과거문제'에 대한 청산 분위기가 높았던 적이 있었다. 그 일환으로 1993년 7월 8일 국가보훈처는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1993년 말까지 독립유공자 로 선정되어 있는 6천 2백

첨거가 확정된 조선 총독 부건물(좌), 혹석동 일대를 일컫는 명수대란 이름은 일제때 있었던 일본인 별장의 이름이 지명화된 것이다

사진 〈한겨레21〉

33명을 대상으로 친일행위자를 가려낼 방침을 밝힌바 있다. 그때 국가보훈처가 밝힌 친일행위자들은 모두가 한때 독립운동에 참여했다가 일제말기에 독립운동을 포기하고 일제에 협력한 즉 전향한 자들이다.

흐지부지한 재심사

이들 중에 세간의 관심을 모은 사람은 김성수였다. 그 이유는 그가 다른 사람에 비해 화려한 독립운동 경력을 지니고 있다거나 이승만 정권 아래서 부통령을 지냈고 한국 보수야당의 정통성을 갖는 한국민주당을 이끈 거물이어서라기보다는 그 이름의 현실적 크기 때문이었다.

김성수는 동아일보로 대표되는 언론, 고려대학교와 중앙재단으로 대표되는 기업으로 이어지고 이에 따라 현실적으로 막강한 물리력을 지니고 있다. 실제로 김성수가 경영했던 신문이나 그 밖의 보수성향의 신문은 국가보훈처 심사대상 인원의 명단을 제대로 발표하지 않다거나 김성수의 이름만 빼고 발표하였다. 또한 이를 전후하여 국가보훈처의 재심사 방침이 흐지부지 세인의 관심에서 사라진 것을 보면 그 물리력을 짐작하고도 남는다.

김성수를 위시한 친일행위자들뿐만 아니라 독립유공자 재심사 계획으로 상징되는 '친일 전재 청산'문제의 본질이 외부적인 힘에 의해서 왜패되거나 흐지부지되어 버리는 것은 민족사의 정통성회복을 위해서 매우 불행한 일이다. 친일잔재 청산 문제가 해방 이후 한번도 본질적인 차원에서 진지하게 다루어진 적이 없기 때문에 언젠가는 반드시 짚어야 될 문제라면 더욱 그렇다. 민족의 통일이 눈 앞에 다가오고 통일의 민족사적 정통성이 문제로 제기될 때 친일잔재 청산의 문제가 본질적으로 제기될 것이기 때문이다.

청산해야 할 친일파

문민정부의 출범 이후 사정과 개혁의 바람이 몰아쳤지만 김영삼 정권은 자신의 태생적 한계를 넘지 못하고 결국은 정적을 제거하는 수준에서 사정의 칼날을 거둘 수밖에 없었다. 최근 12·12무데타를 반란으로 규정하는 판결과 반란수괴를 사법처리해야 한다는 여론 가운데 또다시 그 핵심 인물에 대한 단죄는 흐지부지되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역사에 대한 무지이다. 역사를 바로 잡는데 공소시효가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프랑스는 독일에 점령당한 기간이 4년밖에 안되는데도 나치에 협력한 자를 가려내어 3만 8천명에게 징역을 살게했고 지금까지도 나치에 협력한 자를 추적하여 잡고 있다. 그런데 우리의 실정은 어떠한가? 친일파 청산은 커녕 친일파가 정권을 잡고 애국지사를 말살하는 거꾸로 된 역사가 진행되었다. 독립운동가가 불순분자로 몰려 탄압을 받고 행적을 숨겨야 했으며, 일본 밀정이 독립유공자로 훈장을 받고 매국노가 애국지사의 공훈을 심사하는 기상천외한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그럼에도 친일파 청산은 왜 구호에만 그치고 있는 걸까? 언론은 누가 어떻게 친일을 했는지 말을 하지 않는다. 가끔 입을 열더라도 피라미 몇 마리 잡는 정도다. 학교는 누가 친일파였는지 가르쳐 주지 않는다. 오히려 친일파 이광수, 서정주, 모윤숙, 노천명 등의 시와 글을 가르치며 외게 하고 있다. 경찰은 친일파를 잡아 가두지 못한다. 법관은 이들을 법정에 세우지 못하고 정치는 이들을 다스리지 못한다.

왜인가? 그 이유는 너무나도 분명하다. 친일파 민족반역자들을 심판해야 할 위치에 있는 소위 지도층이라는 자들 대부분이 친일경력자이기 때문이다. 이 나라의 대통령부터 국무총리, 국회의장, 대법원장, 내무장관, 서울시장을 비롯해 동아일보, 조선일보, 군, 경찰, 문화, 예술, 종교계 곳곳에 친일파의 뿌리와 촉수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 심지어는 광복회장조차도 친일파였다.

세계화의 전제조건

치욕의 역사는 그 과오를 반성하지 않는 민족에게 다시 반복된다. 반민족행위와 불의가 심판받지 못하고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한다"는 현실은 이땅에 다시 민족을 팔아먹는 것을 불러오게 마련이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친일파 청산의 문제는 과거 사실의 규명에 관한 문제가 아니다. 친일파 민족반역자들의 명백이 해방 이후 미국에 의해 끊임없이 유지, 온존되면서 현재까지 우리민족의 자주권 실현과 통일을 가로막는 결정적 장애가 되고 있다. 더욱이 이들 민족반역자와 그들의 인맥과 후손들은 자신의 생명을 조금이라도 더 연장시키기 위해서라면 민족의 이익을 아낌없이 외세에 헌납하고 국민들에게 고통분담을 강요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과거 군부독재 정권에서 요직을 차지하고 있었던 인사들이 대부분 미국에 의해 구원받은 친일인사이거나 이들과 깊은 인맥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 하나만으로도 분명해진다. 현재의 문민정부도 이러한 친일인맥과 단절하지 못하고 그들의 영향력 아래 놓여있는 한, 과거 군부독재 정권의 모습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이제 친일파 민족반역자 청산의 문제는 문제 제기의 수준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 문제가 근원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한 우리 민족의 정체성은 여전히 보호할 수방에 없다. 입으로 아무리 국제화, 세계화를 떠들어봐야 국적 없는 공허한 목소리에 불과할 뿐이다.

HEWLETT PACKARD

HP데스크젯 50만대 판매돌파기념
제1회 'HP스키타운' 오픈!

올겨울에 꼭 해야할 일 2가지를 한번에 — HP도 참만하고, 둘이서 스키장에도 가고!

표준지가 선정한 No.1 컴퓨터 전문회사가 만든 HP 데스크젯 - 국내판매 1위의 데스크젯 50만대 판매돌파에 감사드리며 HP가 제1회 스키타운을 오픈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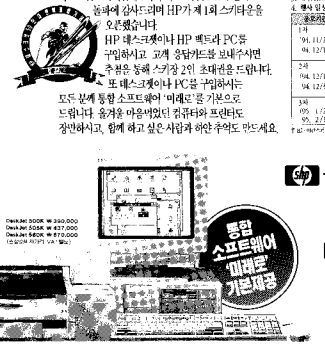
HP 데스크젯이나 HP 벡트라 PC를 구입하시고 고객 응답카드를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스키장 2인 초대권을 드립니다.

또 데스크젯이나 PC를 구입하시는 모든분께 통합소프트웨어 '미래로'를 기본으로 드립니다. 올겨울 마음먹었던 컴퓨터와 프린터도 장만하시고, 함께 하고 싶은 사람과 하얀 추억도 만드세요.

HP가 1,000명을 스키장에 초대합니다.
1. 시 기간 : '94. 11/22~12/11
2. 응모방법 : 고객응답카드 및 보증서를 해당 HP제품을 구매한 날로부터 7일 이내 한국HP로 접수된 것에 한하여 접수됨.
3. 당첨발표 : 개별통지
4. 행사 일정 및 장소

출발지점	일 정	장 소	예상인원
1차	'94. 12/19	에이스타운	10명 (300명)
'94. 11/22~	'94. 12/20	무주리조트	-
'94. 12/11~	'94. 12/26	에이스타운	-
	'94. 12/27	에이스타운	-
2차	'95. 1/13	에이스타운	-
'94. 12/15~	'95. 1/14	에이스타운	-
'94. 12/31	'95. 1/21	에이스타운	-
	'95. 1/22	무주리조트	-
3차	'95. 2/23	무주리조트	-
'95. 1/25~	'95. 2/25	에이스타운	-
'95. 2/23			

↑ 일 : 에이스타운 ↑ 에이스타운에 등 조기예약 전화는 에이스타운에 문의



삼성유젯팩커드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5-12
고객문의센터 : 7690-640
고객기술지원센터 : 7690-600
HP FIRST
해외, 원격만 서비스 GO SHP
회사명을 한글 영문에 삼성 휴렛팩커드를 입력 1분세요
HP 데스크젯 출판 분야용 : ☎(02) 3270-2740 HP 데스크젯 / 7270 / 데스크젯 / 561 / 127 / 560 / 560C / 660C / 660C / 660C / 1127 / 1127
HP 컴퓨터 : 3270 / 3270 / 3270 /